

“실적잔치는 끝났다”... 은행권, 올해 수익 하락 예측

금감원 은행 영업실적 발표

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15% 증가
이자수익·비이자수익 모두 성장세

은행권, 1분기 실적하락 예상
불완전판매 영향 판매 신중하고
비이자이익 부문은 하락 예측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5%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은행업계에서는 올해 실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본격적으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이슈에 대한 배상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이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15.0%) 증가했다고 '2023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 발표를 통해 밝혔다.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지만 이자수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인 덕분이다.

지난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시중

〈국내은행 2022년~2023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1년	'22년 (A)	1Q	2Q	3Q	4Q	'23년p (B)	1Q	2Q	3Q	4Qp	증감 (B-A)	증감률
국내은행	16.9	18.5	5.6	4.2	4.2	4.5	21.3	7.0	7.0	5.4	1.9	2.8	15.0
일반은행	10.1	13.2	3.6	3.2	3.7	2.8	13.6	4.1	3.6	4.2	1.7	0.3	2.6
시중은행	8.6	11.6	3.1	2.8	3.1	2.5	11.8	3.5	3.1	3.6	1.5	0.2	1.7
지방은행	1.3	1.5	0.4	0.4	0.5	0.3	1.4	0.5	0.4	0.4	0.1	△0.1	△8.5
인터넷은행	0.18	0.08	0.03	0.02	0.06	△0.02	0.35	0.08	0.09	0.12	0.06	0.27	326.3
특수은행	6.8	5.3	2.0	1.0	0.6	1.7	7.8	2.9	3.4	1.2	0.2	2.4	46.0

/자료=금융감독원

은행 11조6000억원 ▲지방은행 1조5000억원 ▲인터넷은행 800억원 ▲특수은행 5조3000억원 등이다. 시중은행의 경우는 2022년 11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며 2023년 2000억원(0.2%)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도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NIM은 1.65%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순이자마진은 금융회사들의 수익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작년 순이자마진은 상승했지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21.6%)보다 둔화했다.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 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으로 68% 급증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판매비·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1.1%) 증가했다. 급여 등 인건비는 전년 대비 5000억원 감소했지만, 임차료 등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2022년 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55.6%) 증가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대손충당금산정 개선 등을 통한 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따라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했다고 봤다. 또한 국내은행 순이익은 대출자산 확대, 순

이자마진 개선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분위기는 작년과 사뭇 다르다. 이미 올 1분기 들어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시중은행 실적 중 비이자수익의 수수료이익 부진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 관련 이슈로 ELS 상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금융상품 판매를 신중히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비이자이익 부문 실적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자율배상으로 인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의견도 있지만 금감원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조(兆) 단위 규모로 이뤄지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최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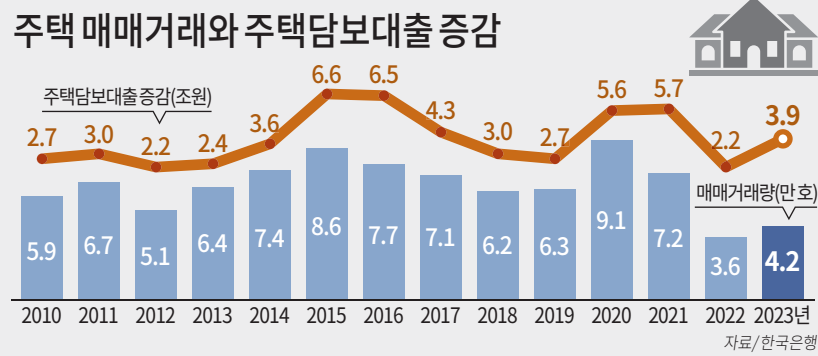
‘고금리’ 신용대출 줄고, ‘규제완화’ 주담대는 늘어

6.3만호→4.2만호 주택매매 ↓
주담대 2.7조→3.9조로 늘어나

“올 전세자금 중심 주담대 늘듯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둔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과거 평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아 자금조달한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6만3000호에서 2023년 4만2000호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는 정책금융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증금 자리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50년 만기 등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이 완화되면서 한도가 늘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담대가 늘어나며 신용대출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신

용대출의 경우 정책금융보다 금리가 높고, DSR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이들이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등 기타대출은 6월 -3조1000억원, 9월 -3조5000억원, 12월 -5조원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금년중 만기도래하면서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고, 신용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아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등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주춤 앞둔 산업계’서 계속

포스코인터·HD현대 등 미래먹거리 사업 추가

오는 28일 추경을 개최하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8월부터 KCGI자산운용으로부터 자사주 소각, 감사위원 선임 절차 개선 등을 요구받아 왔다.

이 외에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추가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추중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과 각종 엔진·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정비·판매 및 서비스를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발전용 가스터빈의 노하우를 항공 엔진으로 넓혀 관련 핵심 소재 및 부품 제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먹거리’ 수소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추중에서 신사업으로 수소 사업과 탄소포집·활용·저장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도 청정 암모니아, 수소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사업 목적에 넣기로 했다.

2차전지 소재를 제조·판매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소재 ‘원료’ 제조·판매와 수출, 대형·중개업을 추가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주춤 앞두고 경영권과 주주환원 등 기업 안팎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과도한 이익 추구나 경영개입 등으로 기업 성장을 발목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비은행권 중심 PF대출 급증... 수익성 악화 ‘주의보’

은행 잔액 44.2조, 비은행권 90.1조
연체율 0.6%→2.4% 3년만에 4배로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F대출 부실에 대응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

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44조2000억원인 반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90조1000억원으로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2020년 0.6%에서 2023년 3분기 2.4%로 4배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대폭 증가했다”며 “대출 부실과 충당금 적립이 확

대되며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업 및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1.1%에서 2022년 말 1.8%, 지난해 3분기 4.2%로 올랐다. 은행이 같은 기간 0.1~0.2%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까지 이어

질 경우 비은행 권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주로 신용평점이 낮은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이용한다. 이들이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부실화,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적된 불안요인을 경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